

자력갱생을 변명의 보검으로 들머지고

중평땅에 일떠선 현대적인 납새온실농장

공화국의 북변땅에 훌륭히 일떠선 중평납새온실농장에 호젓한 납새작황이 펼쳐졌다. 지난 2월에 첫물납새를 수확한데 이어 지금까지 오이, 호박, 배추, 도마도물 비롯한 갖가지 맛있는 납새들을 수확하여 함경북도인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철거시키고 그 자리에 함경북도인민들을 위한 대규모의 납새온실농장도 양묘장을 꾸밀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현저로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골합잡는 공격정신으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200정보의 총부지면적에 성토공사량만 해도 180만m²에 달하고 320동의 현대적인 납새온실과 590여세대의 살림집 등을 일떠세워야 하는 건설은 어렵고 방대하였지만 군인건설자들은 공정별계획을 빈틈없이 맞물리고 효율적인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납새온실농장건설장에 달려나간 군인건설자들은 400여만장의 블로크를 찍고 수십리의 도로를 번듯하게 닦아 놓아 기공공사를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는 돌파구를 열

어놓았다. 또한 강추위속에서 언 땅을 깨내면서 수만m²의 기초 굴착을 단숨에 해제하고 각종 관류의 설치조립과 지하 시설물공사를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자기의 힘으로 온실농장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울 열의를 안고 군인건설자들이 1100만장의 흙벽화체블로크를 생산하여 수백동의 온실 축열벽축조를 40여일만에 완성해갈 때 수경재배와 토양 재배를 배합한 반공룡식2중 박막온실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트라스만곡기를 현장에 전개하고 수만개의 원형트라스제작을 신속히 보장하였다.

중평납새온실농장마을건설에서도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은 설계상, 공법상특성이 수습계 호동의 소층살림집 건설은 설계상, 공법상특성이

해외동포와 조국

물인 한빛이 돋보인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발행하는 《백두-한나》(2020년 6월호)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 김영희가 쓴 글이 실려있다. 필자는 글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김립지부부에 오

즐어진 무게가 아주 무거운 세상이다. 그러나 항상 어머니를 도와 공민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는 김련원동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다. 이는 그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엔 가정교육과 자신의 강한 신념이 담겨있다고 본다.

지대로 지정되었을 때 동포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도와 주었다. 이와 같은 따뜻한 동포애는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도와주는 남편 박영모선생의 지지와 방조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박영모선생은 항상 안해 김련원동포와 함께 동행하며 안해의 사업을 성실성의로 도와주고있다.



어린이 학습, 어린이 제품 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민들레학습장

아이들의 고운 꿈을 심고 날리는듯 한 우산모양의 작은 꽃씨들, 그우로 펼쳐진 푸른 하늘... 공화국의 양지바른 산기슭이나 들판,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민들레이다. 사람들에게 고향과 어린시절을 추억하게 해주는 민들레가 오늘은 아이들의 학습장에 곱게 그려져 새 지식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있다.

학습장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민들레 학습장들은 도시와 농촌, 두메산골과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인계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민들레 학습장들은 도시와 농촌, 두메산골과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인계되고있다.



《정면돌파전을 벌리고있는 조선》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웹 사이트에 《정면돌파전을 벌리고있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글의 요점은 오늘 조선에서 전진을 저어하는 모든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이 합쳐져 벌어지고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망에 대해 주목을 돌리고있다는것, 분석가들은 한결같이 정면돌파전의 주도권은 확고히 조선의 손에 쥐여져있다는 평을 내리고있다는것이다.

제사회에 실증해보고있다. 조선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환경속에서도 자력으로 생존하고 적을 쳐물리치며 난관을 뚫고 전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기어이 자력부강으로 국가의 존엄을 사수하며 제국주의를 때려부시려왔으며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어 자기식으로 경제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전진속도를 다그치고있다. 중요대상건설을 립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경공업부문의 제자원화, 자연부원의 적극적인 개발리용, 최대한의 중산절약,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한 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새로운 로선의 제시는 조선인민이 생명처럼 여기는 존엄을 절대로 팔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것임을 다시한번 국

수습계 호동의 소층살림집 건설은 설계상, 공법상특성이 수습계 호동의 소층살림집 건설은 설계상, 공법상특성이

민민들이 선호하는 《은방울》 손풍금

손풍금은 모든 악기들중에서 가장 널리 대중화된 악기라고 말할수 있다. 학교와 일터, 극장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파급된 범위가 대단히 넓다. 공화국에서 《은방울》 손풍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다. 음악애호가들과 전문가들속에서는 《은방울》 손풍금이 풍량의 기계적정치가 민활하고 음색이 부드러우며 전체적인 울림이 고운것으로 하여 음악형상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훌륭한 악기라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인기를 끌고있는 《은방울》 손풍금은 평양악기공장에서 제작되고있다. 평양악기공장은 나라의 악기제작공업이 빈터나 다름없던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날에 창립되었다. 악기제작공업의 모체, 기둥이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이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평양악기공장은 자그마한 제작소로부터 오늘날은 수십여종의 다양하고 질 높은 손풍금을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글지의 악기제작공장으로 자라났다.

이루는 색채판의 무늬를 새롭게 하여 제품의 문화성을 높여왔으며 열변음기와 함께 리듬음기를 설치하여 연주자들이 연주중에도 자유롭게 음을 변환시켜 보다 훌륭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있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손풍금의 품을 올려 소리빛깔을 더욱 밝게 하였으며 선률합성음측정 체계를 도입하여 악기소리의 정확도를 높이고 견반도 유연하게 하여 연주자들의 주법과 형상력을 더욱 풍부히 할수 있게 하였다.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손풍금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친근한 길동무인 《은방울》 손풍금, 멋진 형태와 아름다운 음색으로 하여 인민들이 선호하고 수요가 높은 손풍금을 더 많이, 더 질 높게 생산하기 위해 공장의 종업원들은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참다운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들에게 남자들이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의 실질적인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있다. 평양산원,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하여 여성들이 참다운 권리와 삶을 누리려가도록 온갖 조건과 혜택을 충분히 마련해주고있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여성들은 사회

있는 여성들도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평범한 여성들이 영웅으로, 인민재력원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박사로서, 국가가 다 아는 시대의 전형, 로력혁신자로 되고있는 공화국이다. 결코기엔 소박하고 수수해보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

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고싶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하기에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힘과 열정, 지혜를 바쳐가는 공화국여성들의 모습을 감지 높이 노래하는 《사랑하시

그뿐이 아니다. 성폭력행위가 피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질서를 일으키고 여성들의 인격과 존엄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성추문과 학대행위의 희생자로 되어 울분을 터치고 여성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차별시되어 일차리에 쫓겨나고 가정마저 포기하고 있다.

참다운 권리와 삶을 누리며

의 한 성원으로, 안해로서, 어머니로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한가정을 알뜰살뜰 가꾸고 자식들을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며 영애군인의 일생의 길동무가 되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어머니가 되려는 미덕의 주인공들이 공화국의 여성들이다. 조국보위초소들과 거창하게 일떠서는 창조물들에 깨우친 량심과 성실한 맘을 바쳐가고

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가사우에 국사를 놓는 이 땅의 여성들의 훌륭한 정신도 덕적품도, 사회와 집단에 밝은 빛을 주며 거기에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이 나라 여성들의 불같은 헌신을 느낄수 있다.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인사는 《여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환상

참다운 권리와 삶을 누리며 《최》로 되어 온갖 사회악과 불평등을 시달려다 못해 수많은 여성들이 절망에 빠져 범죄와 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여성들의 처지이다. 얼음우에 떨어진 씨앗이 꽃으로 필수 없듯이 여성차별, 여성학대의 병폐가 만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들이 존엄과 권리를 잃고 시들어갈 때 사회의 당당한 한성원으로서는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려는 공화국의 여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럽다.

이 새로운 로선의 제시는 조선인민이 생명처럼 여기는 존엄을 절대로 팔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것임을 다시한번 국

리송건